

엘런 의장의 시장 달래기와 IT

송승연 3276-6273
seungyeon.song@truefriend.com

- 지난 주 코스피 : 엘런 의장의 시장 달래기로 신고가 경신. IT, 성장주 위주 강세
- 글로벌 IT 사이클 재개. IT 비중 높은 한국, 대만 등에 대한 투자심리 긍정적
- 글로벌 펀드 자금 : 신흥시장 자금 유입세 지속, 하이일드 펀드군 자금 유출 지속

지난 주 코스피 : 엘런 의장의 시장 달래기로 신고가 경신

지난 주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재료는 엘런 연준 의장의 미국 하원 증언이었다. 더구나 6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와 부진한 6월 고용지표가 확인된 가운데, 연준이 기존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지 여부에 모두가 집중하는 모습이였다.

뚜껑을 열어본 엘런 의장의 연설 기조는 시장의 예상보다 비둘기 쪽에 가까웠다. 엘런 의장은 몇 년간의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은 필요하지만, '연준의 장기 '통화정책 중립적' 기준 금리는 지난 수십 년간의 평균보다 낮을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금리 인상 폭이 시장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보유자산 축소에 대한 입장도 비교적 완화된 모습이였다. 연준의 자산은 지금 수준보다 축소되겠지만, 재정위기 전 수준보다는 높게 유지될 수 있다(reducing the quantity of reserve balances to a level that is appreciably below recent levels but larger than before the financial crisis)고 밝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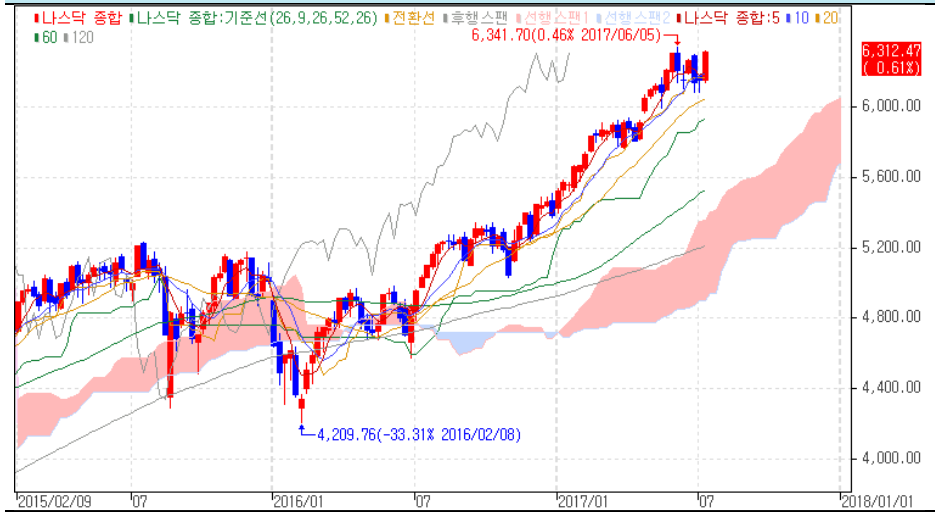
엘런 의장의 시장 달래기로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연설 직후 IT 관련 지수나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2,300pt 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신고가를 재차 경신했다. 6월 이후 조정 국면을 겪던 나스닥과 러셀2000, 대만가권 지수 모두 주봉 기준 양봉으로 전환해 상승 마감했다. IT 대형종목들 역시 반등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엔비디아, 알파벳 등 미국 IT 대형주도 연설 당일 각각 4.3%, 1.5% 반등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그림 1] 7월 10~14일 코스피와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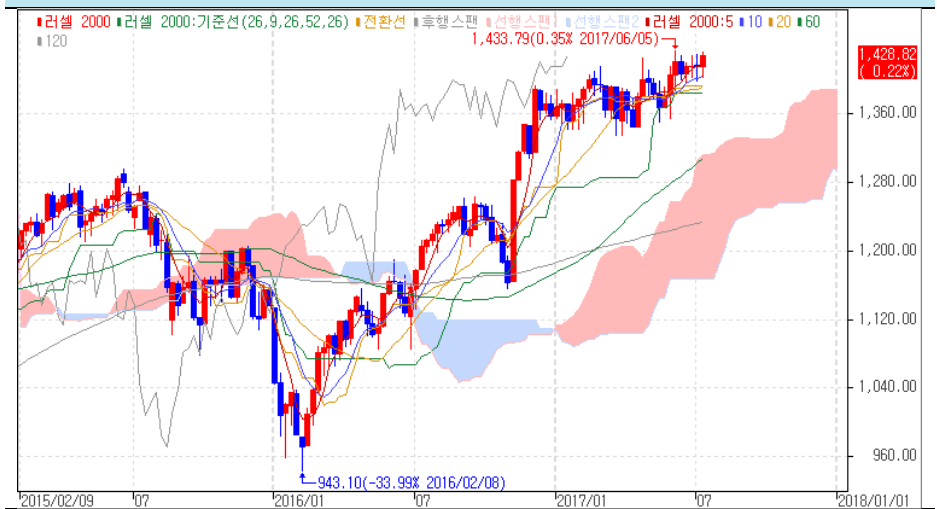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미국 나스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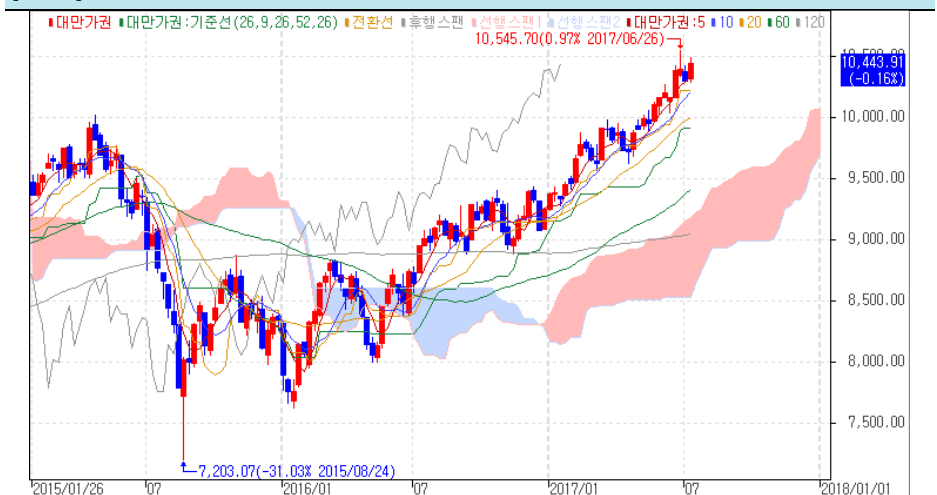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미국 러셀 2000 지수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대만 가권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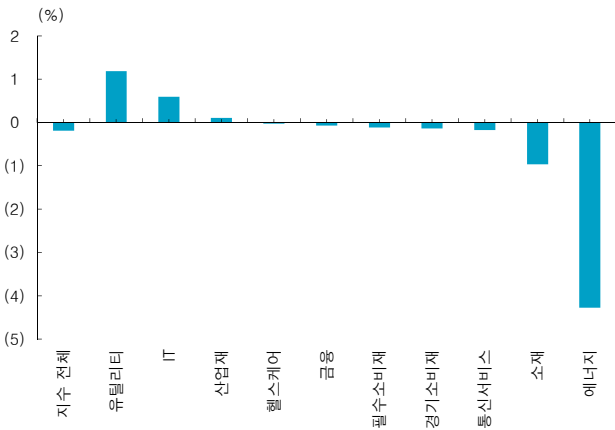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IT 비중이 높은 신흥 시장에 대한 기대감 지속될 것

물론 옐런 의장의 연설이 비둘기적이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금리 인상과 자산규모 축소를 명시했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더구나 매년 연준의 의사록이나 성명서에서 밝혔듯,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는 'data dependent'이다. 최근 부진했던 미국 경제지표가 회복된다면, 연준은 언제든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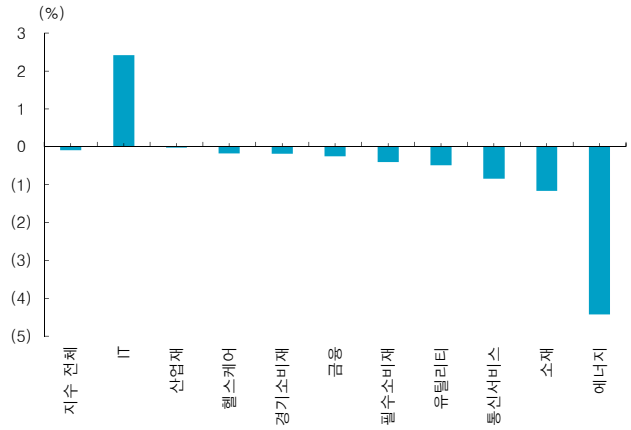
어쨌든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감소되자마자 IT 업종이 바로 반등했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의 IT 사이클에 대한 믿음이 견조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IT 업종 전체의 이익 추정치는 타 업종에 보다 가파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 나스닥이나 IT 기업들의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국, 대만 등의 비중이 높은 iShares MSCI EM ETF의 유통 주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IT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IT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지속되는 한, IT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역시 긍정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그림 5] 업종별 12개월 선행 EPS 1개월 변화율 :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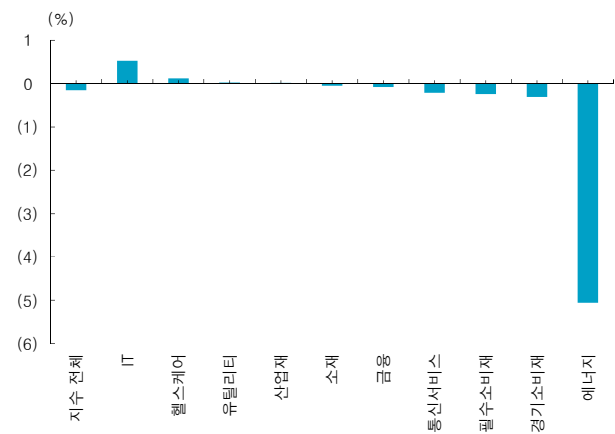
자료: Thomson IBES,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업종별 12개월 선행 EPS 1개월 변화율 : 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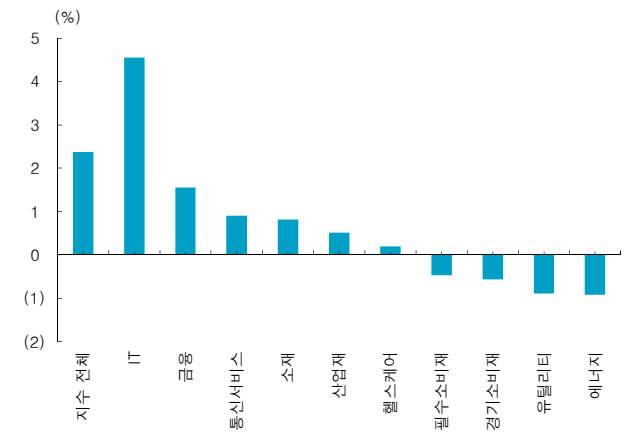
자료: Thomson IBES, 한국투자증권

[그림 7] 업종별 12개월 선행 EPS 1개월 변화율 : 미국



자료: Thomson IBES, 한국투자증권

[그림 8] 업종별 12개월 선행 EPS 1개월 변화율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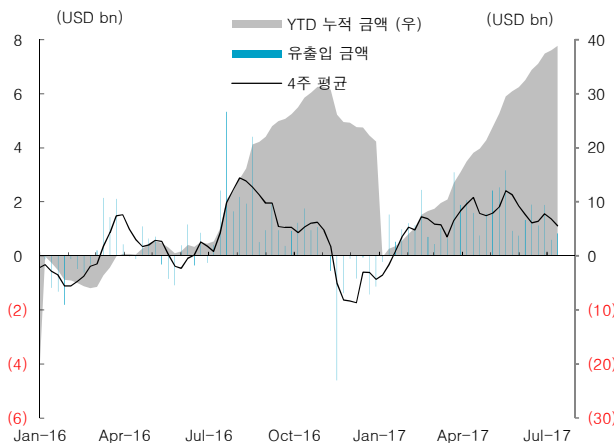
자료: Thomson IBES, 한국투자증권

지난 주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 약해지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

한편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에서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모습이 지속 관찰되고 있다. 지난 주 글로벌 주식형 펀드군에서는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모두 자금 유입세가 관찰된 가운데, 신흥 시장보다 선진 시장에 더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다만 글로벌이머징 펀드군(GEM)에서는 역대 최장 유입 기간인 27주 연속 순유입세가 관찰됐고, 유입 규모는 이전 주에 비해 오히려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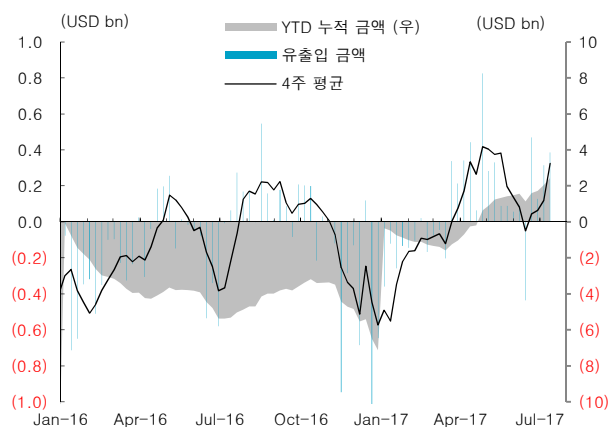
채권형 펀드 자금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이 관찰됐다. 신흥시장 채권형 펀드 전체는 순유입세를 보였지만, 달러 표시 채권형 펀드군은 순유출세를 기록했고,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군은 3주 연속 순유출세를 보였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및 채권 채투자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증기 국고채 펀드군에서는 이 전주에 이어 자금 유출세가 관찰됐다. 반면 현금과 비슷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구분되는 MMF 펀드군 순유입세가 확대됐다.

[그림 9] 글로벌 이머징 주식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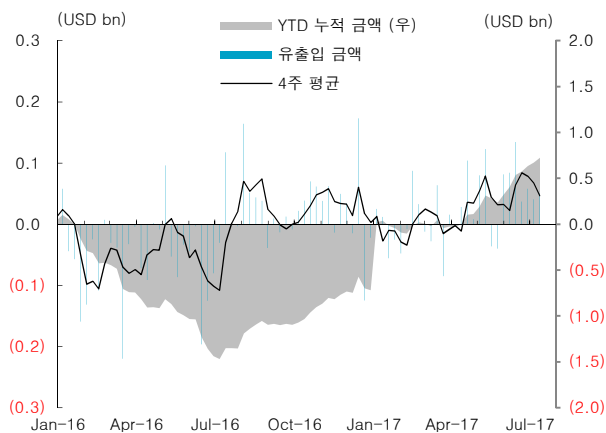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일본제외아시아 주식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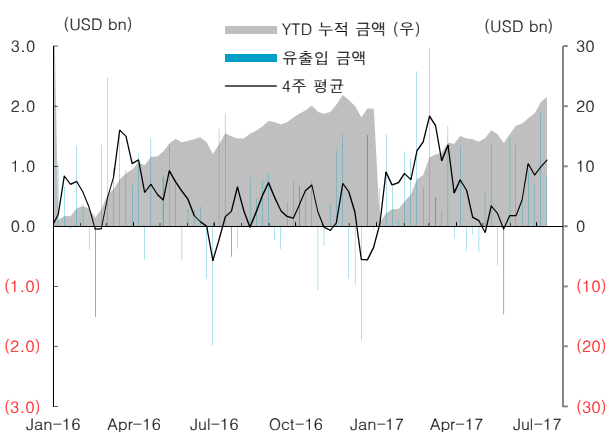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태평양 주식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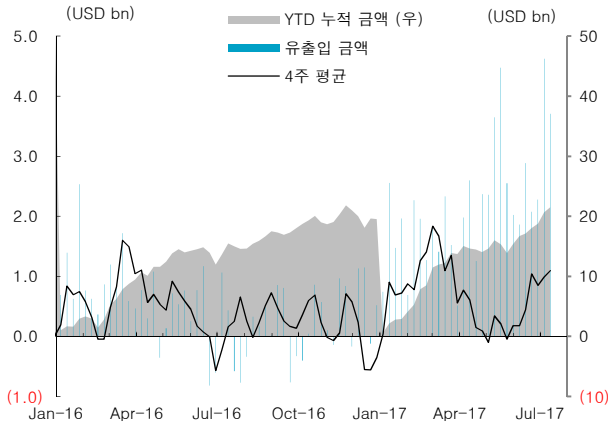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글로벌 주식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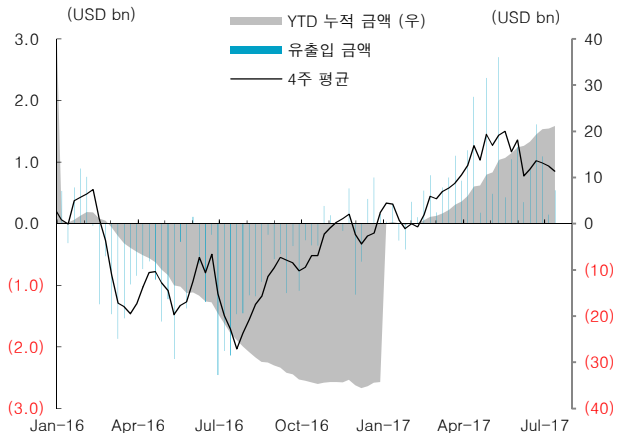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미국제의 글로벌 주식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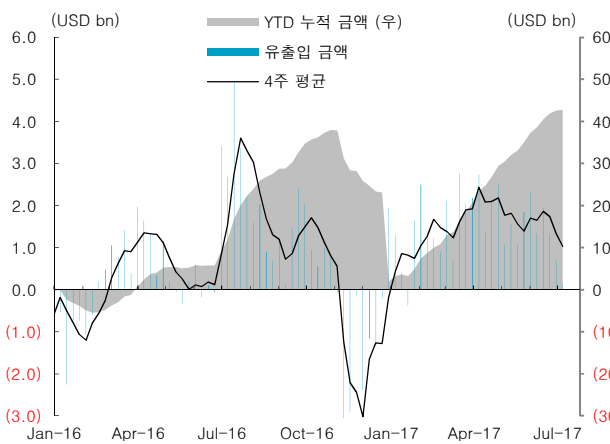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영국제의 유럽 주식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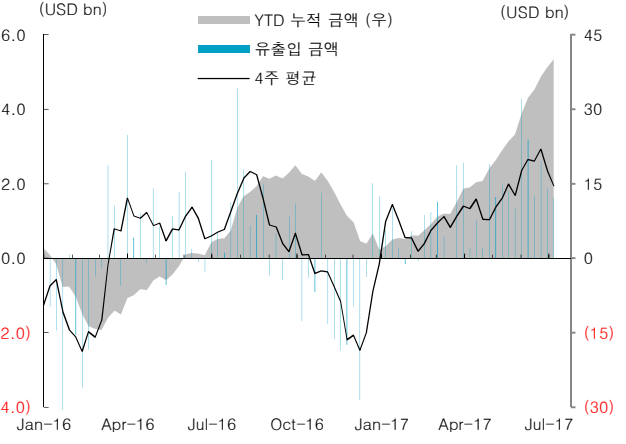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신흥 시장 채권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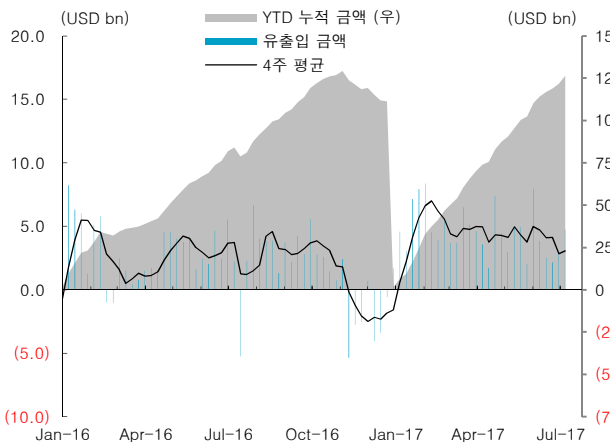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글로벌 채권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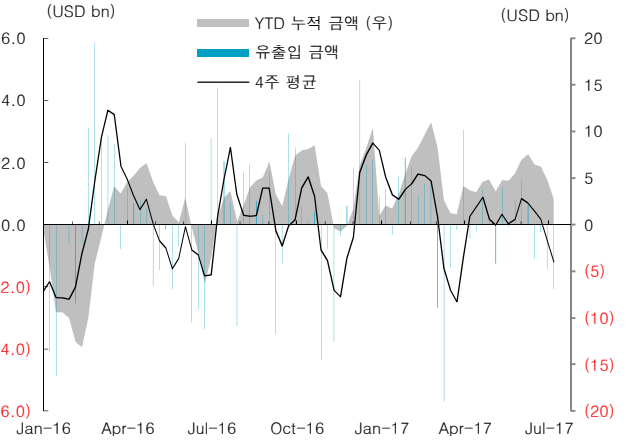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미국 채권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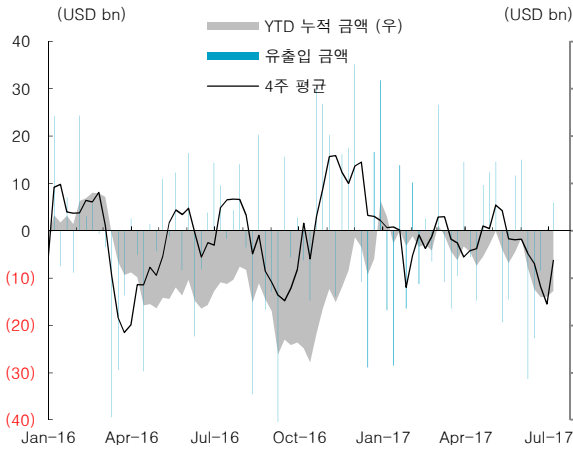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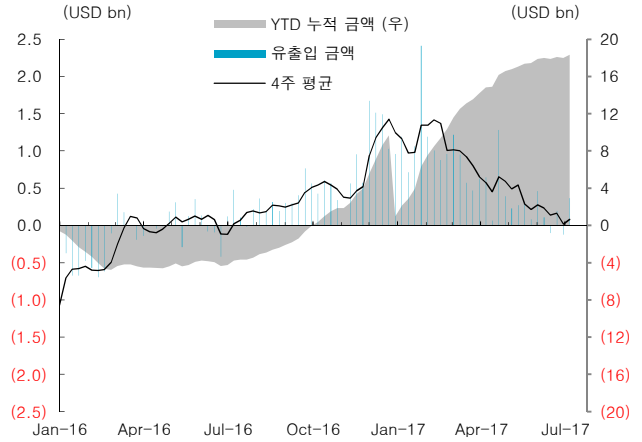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머니마켓 채권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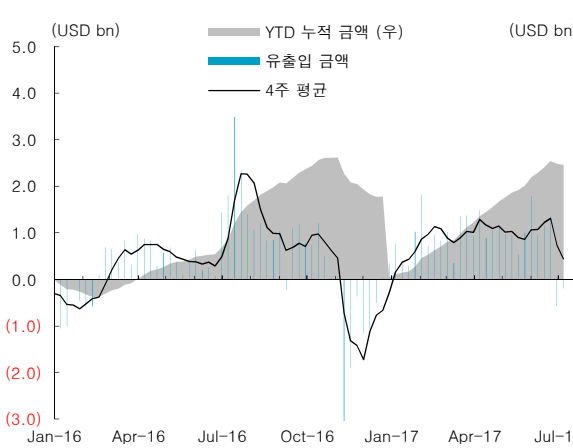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20]뱅크론 채권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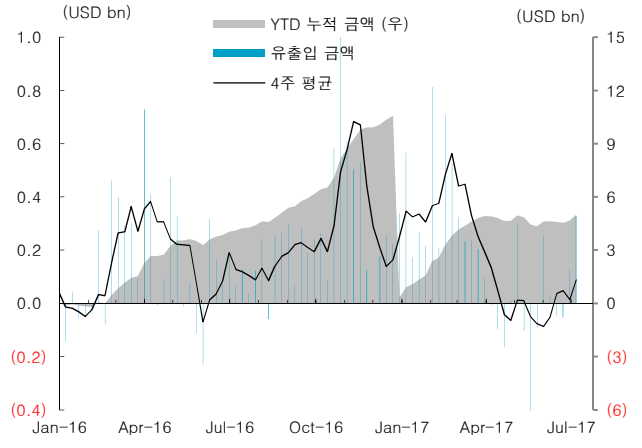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21] 달러 표시 채권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그림 22] 미국 물가연동 채권형 펀드군 유출입 동향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